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관점에서 비교 -

곽 인 숙(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한 개인이 노화과정을 통하여 제반 사회적 환경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노년사회학의 관심거리이다. 노화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노년사회학의 다양한 이론 가운데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이론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이론들 가운데 인간의 노화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 대표적이며 1960년까지 지배적이었던 미시적 차원의 노화이론중 긍정적 시각의 활동이론과 부정적 시각의 분리이론의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차원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인간 차이를 무시하거나 노인의 능력감소를 과대평가한 점을 보완하여 개인이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의 관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태련(1988)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중 활동이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12개 문항과 분리이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12개 문항 등 총 2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된 활동이론 관점의 태도점수는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될수록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분리이론 관점의 태도점수는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될수록 사회에서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각각의 관점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각각 .692 .763이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유형, 소득, 주택소유, 거주지역, 출생지, 우울감, 불안감, 무망감, 자아존중감, 가족결속력, 인지하는 노인연령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으며, 젊은 층인 대학생과 학부모인 중장년층 40, 50대를 포함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제된 응답자를 제외한 588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09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이론의 관점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인이 되어도 얼마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 살아갈 능력이 있고, 은퇴를 해도 가정 밖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활동이론의 관점은 일 영역에서는 활동지향적인가, 가족생활에서는 자녀들과 독립적인가, 세대교류 영역에서는 활동적인가, 사회활동에서는 활동지향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자녀들과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이는 노인이라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세대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리이론의 관점은 일 영역에서는 소극적인가, 가족생활에서는 자녀들에게 의존적인가, 세대교류 영역에서는 소극적인가, 사회활동에서는 소극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의존적이며,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노인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틀에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넷째, 노인에 대해 나이를 먹어도 지속적인 사회생활과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의 무망감 수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일수록 활동이론을 지향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결속력, 불안감, 성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노인에 대해 분리이론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결속력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가족결속력이 약한 경우 분리이론을 더 지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불안감, 거주지역, 우울, 인지하는 노인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졌으며, 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활동이론이 더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차이를 밝히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